

노란건물, SPACE21, 대학구조개혁, PRIM

2015년 돌아보기

박기윤 기자 kyoony7230@khu.ac.kr
최병현 기자 chbhi027@khu.ac.kr

#. 다사다난했던 2015년도 저물고 있다. 올해도 대학주보는 지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사를 통해 독자들을 찾아다녔다. 올해 기사중 조회수 상위 20개에서 지역사회와 관련 된 기사는 5개로 지역사회 주제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조회수 8,434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1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성반점 간판 내린다’ 기사도 역시 지역사회 기사였다. 이 외에도 후마 A교수 막말파문에 관련된 기사, ‘국제캠퍼스’ 명칭의 유래에 관한 기사,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대자보’등도 눈에 띈다. 조회수와 별개로, 올해도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미뤄지던 SPACE21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또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대학구조개혁에서 우리 학교는 다행히도 A등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공간문제,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 혜정박물관, 중앙일보 대학평가, PRIME사업, 캠퍼스 통합등이 있었다. 이에 우리신문은 2015년을 장식한 주제 10가지를 뽑아 다시 살펴봤다.

터 내 폐점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상황이다.

공간문제

올해 역시 학내 공간문제가 중요한 화두였다. 1학기 초에 서울캠퍼스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Task Force Team)는 대학본부 측에 정경대학의 낙후된 시설과 기자재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정경대학 학생회는 3월 22일 청운관 앞에서 ‘정경대학 공간 개선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학교 측은 요구를 받아 들여, 여름 방학 기간에 정경대학 낙후시설 개·보수와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을 진행했다.

국제캠퍼스 공과대학은 자치공간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공과대학은 대학알리미 공시 기준 총 9개 학과에 학부 재학생 인원만 3,200명이 넘는 대규모 단과대학이지만 건물은 1980년에 지어진 공과대학관 1개만을 사용하고 있다. 이후 인원이 증가하고 공간 활용이 힘들어지면서 2013년 12월에 리모델링을 진행했으나 공간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다른 단과대학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다. 전자정보대학은 응용과학대학과 건물을 함께 사용하고, 생명과학대학관은 부족한 넓

<2015년 조회수 TOP 20> (2015.12.04. 오후 7시 기준)

순위	기사명	날짜	조회수	순위	기사명
1	17년간 한 번도 바뀌지 않은 ‘영성반점’ 간판 내린다	07.15	8,434	11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2	“밖에 나가 일하는 여자, 이기적인 여자?”	09.30	7,246	12	‘총여학생회’ 존폐논란 대자보
3	회기동에서 오래된 식당 7곳은 어디?	03.17	6,226	13	‘풍다우’ 동아리
4	“누구세요?” 한눈에 보는 신입생	03.16	5,696	14	‘경기도’ 대학
5	국제캠퍼스는 왜 ‘국제’ 캠퍼스 인가요	11.30	3,938	15	학교 측, 신설 제
6	‘있는 것도 못 써먹는’ 학교가 부끄럽다	09.30	3,919	16	QS세계
7	국제캠 총학, ‘학생회비 불투명한 사용내역 공개’ 항목으로 검찰청 온라인 민원 신고당해	08.31	3,784	17	한의·간
8	“마을, 청춘에 아로새긴 낙서의 흔적들”	03.16	3,510	18	부적절
9	“미래에 대한 생각이 1%라도 바뀐다면 그 자체가 성공한 것”	09.18	3,353	19	O&P학
10	정문 앞 노란색 건물 그 정체가 뭐가요?	03.31	3,328	20	“수강생



1 지난 5월 11일 문화복지센터가 개관했다. 개관 이전부터 색깔과 명칭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관 후에는 메르스, 방학 등 악재가 겹치고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한 여러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며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2 정경대학 운영위원회와 공간개선TFT가 낙후된 시설과 기자재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학교 측은 요구를 받아들여, 여름 방학을 맞아 정경대학 낙후시설 개·보수, 동아리방·학회실 환경개선이 이루어졌다. 이뿐만 아니라 국제캠 공과대학 등 여러건물에서 노후화와 공간부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3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혜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됐다. 감사행정원(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김교수는 횡령을 포함한 여러 혐의를 받았다. 이에 김교수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취하했고, 감사원은 12월 중으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 교육부에서 작년부터 추진해온 대학구조개혁에 대해 지난 8월 31일 우리학교가 A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우리학교는 ‘자율감축’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 SPACE21사업을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이에 따라 SPACE21에 대한구성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총학측은 안전문제와 기채문제, 학습권 보장 등을 이유로 SPACE21에 대해 우려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현재 2차 회의까지 진행된 소통위원회에서 전반적인 SPACE21에 관한 방향을 계속 논의해나갈 전망이다.

노란건물

개관 이전부터 건물 디자인과 명칭 등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경희의료원 전면플라자가 5월 11일 개관했다. 총학생회는 공식 개관 당일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와 디자인 변경 등의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또한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고, 수익금을 장학금 형식으로 우리학교에 환원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과는 달리 전면플라자의 운영은 임대료를 제외하면 구성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경희의료원 측은 전면플라자와 생협의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긋고,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개관 이후, 일부 입점업체에서 당초 약속했던 우리학교 구성원에 대한 할인 제도를 중단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전면플라자를 운영하는 GS 리테일 측 관계자는 “임주들에게 할인을 권유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올 여름 발발했던 중증호흡기증후군(MERS) 여파와 구성원의 저조한 이용으로 문화복지센

이와 개미집 구조형태의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외국어대학관 소속 학생들은 동아리방을 함께 사용하고, 학과방, 강의실을 전전하기도 하는 등 ‘절대적인’ 공간의 부족으로 자치공간 문제에 관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혜정박물관

지난 8월 20일 김혜정 석좌교수가 혜정박물관 관장 직에서 직위해제 됐다. 이는 1월부터 4월 말까지 진행된 감사행정원(감사원)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김교수가 976만 원을 횡령, 개인 소유 유물 30점을 교비로 구입, 기증한 유물 무단 반출, 세금계산서 허위 작성, 교직원들 무단 동원했다는 등의 혐의를 밝혀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더불어 김교수가 ‘훼손’됐다고 주장하던 해좌전도가 입고 당시부터 훼손 상태가 심했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혜정박물관을 사이에 두고 김교수와 감사원 측의 공방이 점차 심화됐다. 김교수의 주장을 뒤엎는 사진자료가 공개된 상황에서 감사원은 ‘김교수가 허위사실로 행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 박물관 내부문서를

무단 반출한 행위 등에 대한 형사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교수는 이러한 감사원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김교수는 지난 8월 감사결과를 비롯한 징계절차에 대해 “현재 거짓 감사결과에 대한 법적절차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한 이야기는 들려주기 힘들다”면서도 모든 비리혐의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덧붙여 “976만 원은 경희대학교에서 지원하는 박물관 운영자금과 무관한 전시회 행사비용으로, 지난해 3월 당시 직원이 임의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조로 수수한 것을 사후에 적발해 돌려내도록 한 것이다.

실제로 박물관의 유물관리비용 등으로 사용됐을 뿐 사적 용도로 지출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교수는 9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1월 23일 취하했다, 감사원은 12월 중으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우리학교는 지난 8월 31일 교육부가 추진

하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자율감축’ 대상이 됐다. 대학구조개혁을 통해 교육부는 지나치게 비대해진 대학 정원을 적정 수준으로 줄이는 한편, 각 대학별로 특색 있고 강점 있는 학과 중심으로 조직 간소화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가장 높은 등급인 A등급을 받은 학교는 정원을 자율감축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되고 B등급은 4%, C등급은 7%, D등급은 10%, E등급은 15% 이상을 의무적으로 감축해야 한다. 특히 ‘학사관리’ 항목에서 학생성적분포가 평가지표에 포함돼, 각 대학은 평가를 준비하면서 성적평가에서 상대평가를 강화하고 학점별 비율을 제한하는 등 학칙을 고쳐 학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A등급을 받아 정원감축에 있어서 ‘자율감축’을 할 수 있게 됐지만 대학구조개혁은 총 3주기 중 이제 고작 1주기 평가가 끝난 상태다. 3년 뒤 있을 2주기 평가도 준비해야 한다. 2주기, 3주기 평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학본부는 “1주기 평가에서는 이미 수치화 된 정량지표를 개선하기 힘들었

다”며 “다가올 2주기 평가를 위해 정량지표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SPACE21

SPACE21사업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공사에 들어갔다. 2007년 처음 발표된 계획에는 올해 완공으로 예정돼 있었으나, 예산부족과 행정심판 등의 문제로 미뤄지다 결국 올해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대운동장 부지에 건설 중인 서울캠 공공기숙사는 지역주민들과의 마찰과 행정심판으로 일정이 지연돼 올해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했다. 이로 인해 간호과학대학·이과대학·한의과대학의 건설 또한 연쇄적으로 지연됐다.

착공 이후에는 공사 기간 중 학내 안전문제가 제기됐다. 서울캠퍼스는 본격적인 공사 시작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보차도 분리과 건설차량진입로 공사, 노천극장철거를 진행해 9월 완료했다. 국제캠퍼스는 신공학관 건축사업과 외국어대학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구성원 간 논의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미 구성원 간 논의를 마친 종합체육관의 공사가 먼저 시작됐고, 안전 펜스등을 설치해 최소한